

(주)로보피아

제어기 전문 설계 · 개발 · 제조회사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사회공헌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자립의 기반을 갖추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대학의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고 특히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한 첨단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창업에 꿈꾸는 기업가들은 물론 독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표 이규연

발, 체계적인 인재양성 등 기술과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경영이념을 실현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로보피아인들은 혁신적인 사고와 창조적 도전주의 정신으로 (주)로보피아를 21세기의 일등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열정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대표이사는 "인기 있는 기업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창조적인 정신을 가지고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진정한 기업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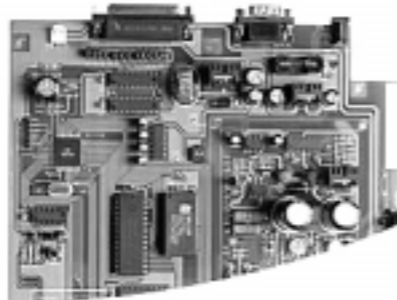
(주)로보피아는 2000년6월 설립 이후 디지털 혁신 및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앞서가기 위해 혁신적인 기획, 창조적인 디자인, 그리고 우수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분 결에서 의(衣), 식(食), 주(住), 의료(醫), 로봇 등의 분야에서 핵심 제어기를 전문적으로 설계 · 개발 · 제조하는 회사로 확실히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에는 골밀도진단기 개발에 성공하여 최첨단 의료산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센서기반 자동차 분야에서 최고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고속, 고정밀

연혁

- 2000.06 주식회사 로보피아 법인 설립
- 2002.10 로보피아 기술연구소 인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02.08 의정등록 2건(환편기용 제어패널)
- 2002.09 특허등록 1건(자동차 휠 검사장치)
- 2002.10 특허출원 1건(러닝 마신)
- 2002.11 벤처기업 인증(경기지방중소기업청)
- 2002.12 상용기계공업(주)와 협약서 체결
- 2003.11 특허등록 1건(러닝머신 운동시스템 및 운동방법)
- 2003.12 경기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부원 경기도지사 표창
- 2004.04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패밀리기업 지정(경기중소기업청)
- 2004.06 유망기술기업 지정(기술신용보증기금)
- 2004.11 벤처기업 인증(경기지방중소기업청)
- 2005.04 특허등록 1건(편부차 측정장치 및 방법)
- 2005.05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패밀리기업 지정(경기지방중소기업청)
- 2005.12 포천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홍보(포천상공회의소, 포천시)
- 2006.0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단기과제) 선정(중소기업청)
- 2006.07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SMR)
- 2006.08 특허등록 1건(줄무늬를 갖는 직물의 편직 디자인 방법 및 장치)
- 2006.09 이노비즈기업 인증(중소기업청)
- 2006.11 벤처기업확인(기술신용보증기금)
- 2006.11 공장등록 (포천시)
- 2006.11 특허등록 1건(영어학 용수정화시스템과 그것을 이용한 수질관리 시스템 및 원격관리시스템)
- 2006.12 의료기기 판매허가(포천보건소, 포천시)

MAIN PCB



재테크 12 긴 인생- 자녀, 부동산 보다 연금에 의지하라

연초라 고향에 다녀왔다. 마을 어귀부터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부모님과 식사하면서 어르신들의 연세를 여쭙보니 대부분 7,80이 넘으셨다. 정정해 보이시는데 벌써 연세가 그렇게 되셨다니 새삼 놀라웠다. 인간 100세 시대가 멀지 않았구나 싶다.

장수, 현 세대 인류에게 내려진 축복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험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나를 지켜줄 건강과 돈이 없다면 길고 긴 날들이 재앙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자녀에게 물려주는 안락한다는 점이다. 많은 분들이 자녀교육비를 대내다 버거워서 내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낸다고 한다. 그런데 늙어서 자녀에게 집이 된다고 생각해 보라.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은 아니

다. 자녀교육과 내 노후 준비를 동등한 비중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둘째, 노후 준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이 강해서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두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앞으로 저축산으로 인해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필시 많은 미래에 부동산이 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80년대에 부동산에 투자했다 90년대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셋째, 노후 준비를 위해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신연금보험은 살아 있는 한, 즉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만일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찾아 쓰다면 연금까지 바다가 나겠지만, 연금보험은 100살 이상을 살아도 정해진 액수만큼

의 보험금을 타게 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유리한 금융상품이라 하겠다.

또한 종신연금보험의 장점은 관리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동산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고 임대료 등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이 들어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보험이 아닌 자산의 형태로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게 된다. 퇴직금을 자녀 사업비 등으로 주고 나서 노후가 불행해진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연금보험은 연금지급이 시작되면 종도에 해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안전하다.

노후준비를 위해 종신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일은 각자 처한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럴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훨씬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또한 가정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한번의 상담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친구로 삼아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호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자식을 집으로 들어가 사는 것은 사형수가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와 정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의 주변에서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새해다. 시작이 반이다. 담당할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자. 내 노후를 지켜줄 효자가 될 것이다.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을 말하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입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공사를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농지였음을 입증하면 된다.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 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

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97누706, 1988.9.22)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 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점점 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를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본 바 있다.

특히 매수자가 농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아다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약속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자료가 전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크레인 달기 체인슬링 파단으로 중량물 낙하전도

▶재해발생 개요
신축 공장건물에서 크레인 운전자 가 철관작업대에 용접된 러그와 크레인축 사이에 달기체인을 걸어 철관작업대를 수직 운반한 후 정 위치에 놓이는 순간 체인이 파단되면서 전도되어 작업장 정리정돈을 하던 재해자가 함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계수가 부적절한 달기체인 사용
달기체인의 안전계수가 5이상 되어야 하나 계산인장 하중이 작업대 하중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나. 늘어날 달기체인 등 사용
체인 링의 범상 단면지름의 감소가 10% 미만이나 30%까지 감소되어 인장강도가 감소된 상태였으며, 또한 작업대의 러그와 크레인의 축에 체인을 걸때 Over Hand Knot형(강도 감소치:약 40%) 방식을 사용하고 링이 심하게 변형상태에서 2.2톤의 하중이 부가되어 체인 링이 파단된 것으로 판단됨.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기준에 적합한 달기체인 사용
크레인으로 중량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는 5이상인 것을 선정토록 하여야 하며, 최대허용하중 등이 표시된 표시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토록 하여야 함.

나. 늘어날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위험 구역내 작업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관계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및 관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16 Just Blues

50~80년대 Old Pop & Jazz & Blues...



대표 이규연

친구와 가족 연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며 주류와 차를 제공하던 기존의 공간을 연상하게 하는 50~80년대 올드 팝 · 재즈 · 블루스와 함께 만나는 '함께 어울리는 이색적인 공간'을 컨셉으로 제2의 주류문화화를 열어가고 있는 Just Blues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GS 마트 앞 대표 이규연).

도로 음악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계기로 음악과 함께 하는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 대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생활하기에 언제나 즐겁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한다.

포천 가산이 고향인 이 대표는 서울을 시작으로 지난해 위 곳에 동일한 카페를 개업해 이곳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차와 주류를 제공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Just Blues는 고객 층이 한정되어있다. 고객 층은 다른 게 아니라 연령층이 25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Just Blues의 주 고객 층은 30대에서 50대까지 연령층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이 대표는 "30대에서 50대 고객들이 차 한잔과 술 한잔으로 세상살이에 대한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이야기하며 잊혀져 가는 그 시절 그 노래를 서로가 아련하게 떠올리며 감미로운 선율을 맞춰 따라 부르기도 하고 100인치 대형 스크린에서 열창하는 아티스트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고객들이 신성한 곡은 거의 준비되어 있다"고 말한다.

30대에서 50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다양한 장르 음악 신청곡 거의 100% 소화

추억과 그리움이 교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 품 많은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추억과 낭만을 연상하게 하는 커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블랙 톤의 클래식한 인테리어가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색다르고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으며 대형 100인치 스크린을 설치해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에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 고객들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한 점도 돋보이고 있다.

서울 이태원에서 뮤직카페를 다년간 운영해온 이 대표는 어릴 적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음악을 좋아했다고 한다. 한때 DJ 활동을 할 정

Just Blues는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제공되고 있는 커피와 차 · 주류와 먹거리를 소개해준다.

커피 · 음료(3천원), 다양한 차(4천원), 카프리 · 하이트 · 카스 · 엑스필(4천원), 밀러 · 버드 · 하이네켄, 코로나(6천원), 다양한 양주류와 Glass shot(잔), 럼콕 · 잭콕 · 집빙 · 초너워 · 잭 다이얼 · 바카다 · 칼루아(7천원) 등이며 안주류는 과일 · 은행 · 생울 등 다양하며 가격은 1만원부터 2만원까지다.

Just Blues가 마음과 뜻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한잔의 여유와 감미로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서 고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뮤직 카페의 명소가 되길 기대해본다.

예약 문의 031)544-4111 HP. 011)497-2013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추억과 그리움이 교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 품 많은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추억과 낭만을 연상하게 하는 Just Blues는 지난 5월에 개업해 음악과 함께 하는 카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국민연금 Q&A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논란이 많은데 왜 바꾸려 하나?

저납입 고지금으로 2047년경 연금 고갈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7년경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이 소진되면 후세대가 부담할 보험료는 2050년에는 30%, 2070년에는 39%까지 인상 되어 할 것이다. 제도 개편 취지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조금 덜 받고 내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그동안 국민 불신의 주요원인이었던 재정불안 문제가 해소돼 국민연금 기반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이를 운용해 얻은 수익과 미래세대의 지원금까지 지급되어 여전히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한편 저소득 가입자가 연금 및 기타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보장 혜택을 받음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육아 및 군복무' 기간 등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물론 노동단체들은 현재의 60% 연금지급률을 더 낮추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

연금 기본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지급수준을 현재대로 유지하려면 우리가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거나 우리의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실 연금지급수준을 현재 60%에서 최저 40%로 조정하더라도 기금소진을 방지하려면 어느 정도 보험료를 상향조정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지급 수준을 지나치게 하향조정하면 최소한의 노후 소득보장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미래에 부담가능한 정도의 보험료를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현재의 개편안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을 담당 시행해도 보험료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노동단체들은 현재의 60% 연금지급률을 더 낮추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기본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지급수준을 현재대로 유지하려면 우리가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거나 우리의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실 연금지급수준을 현재 60%에서 최저 40%로 조정하더라도 기금소진을 방지하려면 어느 정도 보험료를 상향조정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지급 수준을 지나치게 하향조정하면 최소한의 노후 소득보장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미래에 부담가능한 정도의 보험료를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현재의 개편안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을 담당 시행해도 보험료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노동단체들은 현재의 60% 연금지급률을 더 낮추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